경제가 쏙쏙~7년째 시민 눈높이 특강

광주경제문화공동체 매월 세째주 토요일 무료 강좌 인기

마니아 층도 형성… 균형잡힌 시각 인문·사회학도 곁들어

광주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7년 넘게 실시해오고 있는 무료 경제강좌가 '명품특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대표 윤영선·www.kjecc.or.kr)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실시하는 경제강좌가 68회째를 거듭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경제해설로 정평을 얻고 있다. 강좌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마니아층도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행위 주체로서 바로서기'가 교육목표인 이 단체가 실시하는 강좌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쉽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경제현실을 바로 이해하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개시(改視) 경제학' 강좌이다. 경제행위의 핵심 주체이면서도 국외자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이 경제주체로서 바로서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경제주체로서 개인이 바로 선다면 왜곡된 경제정책이나 관행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있다.

시민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심어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문·사회학 강좌도 곁들이고 있는 것도 매력이다.

윤영선 대표는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사회의 관계 속에 경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다면 경제를 올바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한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는 2003년 경제·금융에 관심 있는 지역 인사들이 꾸린 단체로, 현재 3명의 전문연구진과 5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함으로써 광주지역 민간경제교육센터로 발돋움하고 있다. 강사들은 지난해 5월부터 광주발전연구원 경제교육센터 경제강사로 활동 중이다.

연구팀들은 거시경제·국내 산업까지 그동안 연구 성과물을 10월 홈페이지 구축을 계기로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문적인 경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다. 또 올바른 투자 방향제시를 위해 웹·매거진 서비스도 조만간 개시한다.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가 지난달 1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강의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강좌를 열고 있다. 〈광주경제문화공동체 제공〉

대중강좌는 경제·금융지표를 이용하여 세계 경제흐름을 조망하고, 개인의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자체개발한 투자선행지표도 발표하고 있다. 매월 중요한 경제이슈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정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오는 17일 오후 5시에 열리는 69회 강좌는 '최근 경제동향과 광주지역 부동산 가격 실체'를 주제로 진행된다.

광주 경제 문화 공동체 윤영선 대표는 "오랜 경제교육 경험과 연구성과·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제교육 기관을 넘어 지역 최고의 경제연구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431-633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트 불공정 유통 잡겠다"

광주 방문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등 유통분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한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역 중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오는 26일부터 '하도급계약추정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법 취지를 살리려는 중소업체들이 적극적인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구두발주 공사를 맡은 수급자가 원청업체에 대해 이 사실의 확인을 요청,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과 관련,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정위원장은 이어 "16일 광주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인 ㈜동양정공과 제조업체 관계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정책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6월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

6월 중 광주·전남 지역의 어음부도율이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6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0.45%로 전달(0.44%)보다 소폭 상승했다.

광주지역(0.65%→0.74%)이 0.09%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지역(0.16%→0.15%)은 0.01%포인트 하락했다.

부도업체 수는 11개로 전달(9개)보다 2개 증가했다.

신설 법인 수는 279개로 전달(258개)보다 21개가 증가했고 부도 업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배율은 27.9배로 전달(36.9배)보다 하락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초복앞둔 유통가 '보양식' 열기

명품 삼계탕 세트 등 할인 판촉대전

초복(19일)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보양식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즉석조리용 보양식, 명품 삼계탕 세트, 990원 균일가 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해 고객몰이에 내서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식도락 페스티벌'을 열고 'HOT& COOL 맛대결 특집', '대한민국 최고 인기 보양상품 대전' '여름인기 냉면 제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5일까지 식품매장에서 보양식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스박스(17ℓ) 등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18일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초복상품전'을 열고 토종닭, 한우우족, 전복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22일까지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물을 부어 끓이기만 하면 되는 즉석 보양식 삼계탕과 사골곰탕, 도가니탕, 전복죽 등을 20~40% 할인판매하는 '초복상품전'을 연다.

신세계 이마트는 삼계탕용 닭을 100만 마리 확보하고 21일까지 전점에서 '초복대전'을 열어 들판에 풀어 키운 '방목 토종닭'과 즉석조리용 '녹두삼계탕'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21일까지 전점에서 '원기회복 삼계탕 기획전'을 통해 흑미 등 재료를 달리한 흑삼계탕, 황삼계탕 등 새로운 종류의 삼계탕을 선보이며 '싱글족'을 위한 홈플러스 PB(자체브랜드) 반계탕도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15~21일 모든 점포에서 '초복 보양식 대전'을 열어 무항생제 닭고기와 삼계탕용 전복, 민물장어, 흑마늘소스 훈제오리구이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은 소비자가 충남 홍성의 풍천 장어를 맛볼 수 있도록 여행비와 시식비를 지원해 주는 '풍천장어의 명인을 찾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옥션 식객' 20명을 21일까지 모집한다.

/이은미기자 emlee@

월드컵 이어 초복… 닭이 날개달다

광주·전남 닭가공·유통업체 매출 평소보다 4배 늘어

월드컵 특수에 이어 복날이 다가오면서 닭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전남지역 닭가공·유통 업체도 평소보다 3~4배 매출물량을 늘리는 등 복날 특수를 겨냥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남아공 월드컵이 열린 6월 한달동안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닭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마트에서도 월드컵이 시작된 지난달 11일부터 한국팀의 경기가 끝난 26일까지 닭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45% 가량 신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닭고기 열풍은 오는 19일 초복을 맞아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나주에 있는 화인코리아는 대표 상품 가운데 하나인 '삼계탕'(1봉지당 닭 1마리)' 생산량을 평소 생산량의 3배에 달하는 20만 개로 늘렸다.

이 회사 나원주 사장은 "사실상 닭 고기 성수기인 여름을 맞아 생산량을 늘려잡는 등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도 초복 수요에 대비해 닭 100만마리를 확보했다. 작년 초복 때보다 판매물량을 30만마리 늘려 잡은 것이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녹두삼계탕 등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상품도 15만마리나 준비하는 등 초복 특수를 겨냥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닭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에서는 닭값이 10%가량 올라 7월 현재 삼계탕용 영계가 3700원, 생닭(대)이 57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연합뉴스

알바생 10명 중 4명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했다"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자 10명 중 4명 가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취업포털 커리어의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로가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60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7.3%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해야 했기 때문(52.9%)'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일자리를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35.1%), '고용주가 채용 후 임금 수준을 바꿔서(12.4%)'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급여가 최저치를 밑돌아도 따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42.7%)가 중간에 일을 그만 두거나(30.7%) 고용주에게 항의한 경우(8.0%)보다 많았다.

/연합뉴스